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학년도 수능, 100일 앞으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9일 전주시 동암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집중호우 선제대비 철저”

11일까지 많은 비 예상... 김관영 도지사, 14개 시군 등에 주문 산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 강화·지하차도 선제 차단 등

전북지역에 9일부터 11일까지 집중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도 유관부서와 14개 시·군에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9일 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4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지역에도 11일까지 많은 비가 내려 지반 침하·정전, 누수·고립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지시사항을 시달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등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먼저 유관기관 간 상황공유를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하천·담하류,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저수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 안전조치(방수포 설치)를 지시했다.
특히, 산지·급경사지·산불 피해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대피를 지시했다.
휴가철 관광객, 아열객이 몰릴 수 있는 산간·계곡, 아열장 캠핑장 낚시터 등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선제적 안전조치와 대피 계도로 인명피해 예방도 강조했다.
또한, 소관 시설물별 일제점검(배수펌프장 하천, 도로, 저수지, 산사태, 급경사지, 상·하수도시설, 체육시설, 농산·원예시설, 농축수산시설 등) 및 긴급점검을 실시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도심지 침수를 대비해 지하차도·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

은 경우 시간대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공사장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토사유출 및 빗물 범람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는 태풍급에 비견할 만큼 많은 비를 내리고 있으므로 도민들께서는 하천·산지 등 위험지역 출입과 외출을 자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 하는 등 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말씀을 전했다.
한편 앞서 전북도는 이번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개최해 기상 전망, 중점 관리사항 점검, 시·군별 대처 계획 등을 공유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빈틈없이 단계별 비상근무도 추진하도록 했다. /김경수 기자

‘세계적 관광도시’ 표준 인증 꿈꾸다

전북도, 새만금청·군산시·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와 국제행사 유치 협약

전북도가 지속 가능 관광에 대한 국제적 표준 인증을 목표로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세계적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지역내 SOC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를 비롯해 아태마스터스 대회, 세계캠버대회 등 전북도가 끊임없이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는 행정력이 또 빛을 발하게 됐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함께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의 국제행사를 유치했다.
도는 9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강임준 군산시장, 랜디 더반드 GSTC 대표와 함께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TC는 2022 아태지역 국제컨퍼런스를 군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2025 글로벌 국제컨퍼런스의 군산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2 아태지역 국제컨퍼런스는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이하 지스쿠)에서 6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가운데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GSTC는 세계관광기구(UNWTO),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재단(U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2007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NGO)로 전 세계 300여개의 UN 산하기구, 정부기관, 호텔, 여행사, NGO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여행 및 관광 분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130여개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고, 국가기관, 민간단체, 호텔, 여행사 등의 국제표준과의 부합성을



김관영 전북도지사(오른쪽)와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영상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달 15일, 군산 지스쿠서 ‘2022 아태지역 국제컨퍼런스’

평가하고 심사하는 기관이다.
이번 GSTC의 국제행사 유치는 지난 해부터 운영된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발굴 자문단 운영을 통해 발굴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마이스발 전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날 협약을 맺은 전북도 등 4개 기관은 앞으로 GSTC 지속가능 관광 관련 연구·교육, 국제표준 인증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GSTC의 전문과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유산 등에 대한 지속 발전 가능한 관광 표준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 나갈 경우 전북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북의 자연·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꿔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GSTC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라북도가 지속 가능한 관광표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시책과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국제기구 등 MOU를 통해 군산시가 전북 지속가능 관광 관련 연구·교육, 국제표준 인증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GSTC의 전문과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유산 등에 대한 지속 발전 가능한 관광 표준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 나갈 경우 전북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

농진청, 농업 분야 호우·폭염 피해 대책 마련

조재호 청장, “영농 현장 피해 최소화 기술 지원 등 총력”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8~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조 청장은 9일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농진청 소속 연구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전국의 도(도) 농업기술원장은 영상회의로 참여해 지역별 피해 상황과 조치 계획을 공유했다.
조 청장은 “중부지방에 집중 호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피해 우려 지역의 작목별 대응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영농현장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즉각적인 현장 기술 지원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가축 피해와 농업인 운영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와 기관별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